

고금리·수출 부진...맥 못추는 지역 생산·소비

●호남통계청 '10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

광공업 생산 전년비 광주 0.6% 상승·전남 9.8% 감소 백화점 판매 20개월만에 ↓...대형마트는 하락세 지속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의 잇따른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에 국내 경기도 침체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과 대형소매점 판매도 맥을 못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제공한 '10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광주는 0.6% 상승, 전남은 9.8%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광주 광공업 생산은 전기장비(-28.7%), 기계장비(-9.1%), 음료

(-14.7%) 등에서 감소했으나, 전체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18.3%), 전자부품(14.9%), 고무·플라스틱(14.7%) 업종 등이 선방했다

전남은 전기·가스업(3.6%), 기계장비(31.8%), 석유정제(2.8%)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체 광공업 생산 가치의 가운데 36%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인 화학제품(-24.0%)을 비롯해 고무·플라스틱(-16.1%), 식료품(-17.1%) 등이 크게 감소했다.

이로써 전남은 지난 8월을 기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광주는 지난 5월을

기점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월 대비로는 광주·전남 모두 8.2%~4.4% 하락하는 등 위태로운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 대형소매점의 판매 위축세도 뚜렷하다.

10월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0.1(2015=10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다.

가전제품, 신발·가방, 음식료품, 오락·취미·경기용품, 기타상품, 화장품 등 상품군 전반에서 소비가 줄어든 영향에 백화점·대형마트 판매 모두 각각 전년 동

월 대비 2.2%·10.7% 감소했다.

광주지역 백화점 판매액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지난해 1월(-7.7%) 이후 20개월 만이다. 대형마트는 지난해 8월(-3.5%) 이후로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은 같은 기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76.6(2015=10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4.5% 감소하며 대폭 하락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 2월(-20.6%) 이후 8개월만의 가장 큰 감소폭이며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 감소는 지난 7월(-4.3%)을 기점으로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전국 기준으로도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감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타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던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 등 개인 서비스업종 생산이 일제히 감소한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0.8% 줄어 2020년 12월(-1.0%)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양사원기자

광주은행, '핑크박스' 전달 2천만원 상당...女 청소년 지원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송중옥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100명을 위한 총 2천만원 상당의 '핑크박스'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핑크박스 with 광주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 위생용품 구입이 힘든 지역의 여성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은행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를 위해 송중옥 은행장과 광주은행 여직원들의 모임인 개나리회는 여성 위생용품, 물티슈, 찜질팩, 바디용품, 여성 청결제 등 23종류의 보건·위생물품으로 구성된 핑크박스를 제작하고, 더불어 광주은행 개나리회 회원들이 직접 만든 파우치를 전달했다.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인재양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갯성비' 9천980원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신세계푸드가 9천980원의 '갯성비' 케이크를 비롯해 1만원대 할리데이 가격의 케이크를 출시, 시즌 공략에 나섰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에 김동근씨

제8대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에 김동근(60·전남대 학술연구 교수·사진) 전 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이 선임됐다.

광산업진흥회는 지난 29일 비대면 화상 이사회를 열고 김 전 단장을 제8대 상근부회장으로 결격,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임 김 부회장은 오는 12월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 3년을 시작한다. 임기는 성과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박은성기자

전남대 금속공학과 학·석·박사를 졸업한 그는 광주 광산업 1호기업인 우리로 광통신 연구소장을 지냈으며 광주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PD 및 단장, 초대 호남지역사업평가원장과 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을 거쳤다. /박은성기자

보해 로컬브랜드 상품 '여수밤바다 소주' 인기

'로컬'서 '힙' 찾는 MZ세대 성향 반영

보해양조가 로코노미(로컬+이코노미) 상품으로 출시한 '여수밤바다 소주'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보해양조는 지난 2019년 첫 출시한 로컬브랜드 상품 여수밤바다 소주가 여수 남만포차 거리에서 시장점유율 80%대를 차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리뉴얼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평소 판매량의 2배가 넘었으며 3개월 만에 지난해 1년 판매량의 50%를 뛰어넘었다. 이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로컬이 힙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데 따른 것으로 지역 이미지를 담고 있는 라벨과 기존 소주병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디자인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보해양조

측의 설명이다. 또 파우치 작가 기안84가 자신의 작품이 담긴 '여수밤바다'에 에정을 갖고 온·오프라인에서 적극 홍보한 것도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해양조는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최근 기안84와 협업해 만든 4개 라벨 중 두 번째 라벨 '육망의 자화상'을 생산했다. 여수밤바다 소주는 여수를 상징하는 돌산대교와 별빛을 이미지화시킨 라벨로 유명하다. 지난 7월에는 기안84의 작품 4점을 여수밤바다 전면 라벨에 입히며 리뉴얼 출시했다. /박은성기자



LH 광주전남, 영광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300호 규모

광주선운2 첫 근린생활시설용지·임대주택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LH)가 영광군 행복주택 300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광주선운2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와 임대주택도 처음으로 공급한다.

30일 LH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에게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영광단지 행복주택은 영광읍 단주리 392-1번지 일원에 총 300호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에 따라 22형

(58호), 26A형(100호), 26B형(16호), 36형(42호), 44형(84호) 등 총 5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에는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조성돼 주민 편의를 높이며 반경 2km 내에 영광군청, 영광읍사무소 등의 행정시설과 종합병원, 보건소 등 의료·복지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여건이 양호하다. 또 반경 1km 내에 영광종합버스터미널 및 반경 10km 내에 서해안고속도로 영광IC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 시·군으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청약 접수는 12월12~21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내년 4월13일이다.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다.

LH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용지 4필지(3천㎡, 77억원)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17필지(4천㎡, 67억원)도 공급한다.

선운2지구는 선암 운수 소총동 일원에 39만8천㎡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사업비 7천26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운수IC 및 광주 송정TX역, 광주지하철 1호선과 인접한 곳에 입지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으며 빛그린 국가산단(GGM 기업주,

금호타이어 이전 추진)과 호남대학교 등 입주 수요가 풍부하다.

단독주택 91가구, 자체건설 1천830가구, 민간 1천487가구 등 총 2천96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선운2 공공임대주택 606호도 공급한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혼합단지로 국민임대 447호(전용 29㎡·36㎡·44㎡), 영구임대 159호(26A㎡·26B㎡(주거약자용 주택))로 구성돼 있다. 입주는 2024년 5월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국민임대의 경우 12월14~22일이며 영구임대는 12월14~22일 필요서류를 지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수희기자

광주전남 수목장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장묘 추세는?
봉분, 봉안(납골)

↓

자연장, 수목장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수목장 전문업체입니다.

상담문의 062-464-3466
고민은 좋은 자리만 놓칠 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